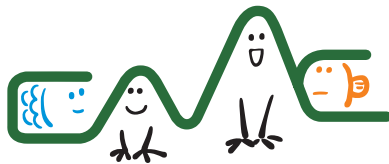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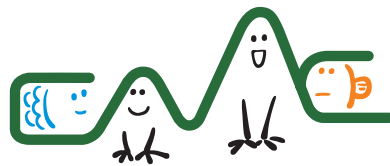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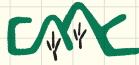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기록한 경험을 담아 새로운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당신을 위해 만든 안내서입니다. 도시 곳곳에, 우리의 삶터 가까이 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비인간 이웃들을 발견하고 기록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책의 모티브가 된 두 권의 책의 내용으로 그 답을 대신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자연이란 자연보호구역이나 공원 따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관찰일기 쓰기를 통해 우리는 자연은 온통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필요한 건 인식과 자각이 깊어지는 것뿐이다.

- 클레어 워커/레슬리 찰스 E. 로스

“알면 사랑한다!” 내가 수없이 많이 떠들어 대는 말이다. 자연도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보호하게 되는 법이다. 자연관찰일기를 쓰다 보면 저절로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자연의 수호자들로 큰 것이다.

- 최재천

그림을 그리며 사진을 찍을때보다 훨씬 더 자신이 관찰하는 대상에 직접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그림은 자신이 본 것을 재창조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 에드워드 O. 윌슨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 알아갈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오히려 재미있다. 도시를 산책하다 만난 나무, 꽃, 새, 동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면 더 특별해지는 하루. 여름은 매일 뜨겁지 않고, 겨울은 눈 얼어있지 않다. 주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세상과 시간의 흐름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 이다의 자연관찰일기/이다

주변에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을 찾아 나설 시간
나만의 방식으로 매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기록 해봅니다.
체험이 아닌 경험이 되어 습관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특별한 도구들을 담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가득차 있는 다른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동봉된 스티커를 이용해 바인딩북과 틈케이스를 꾸며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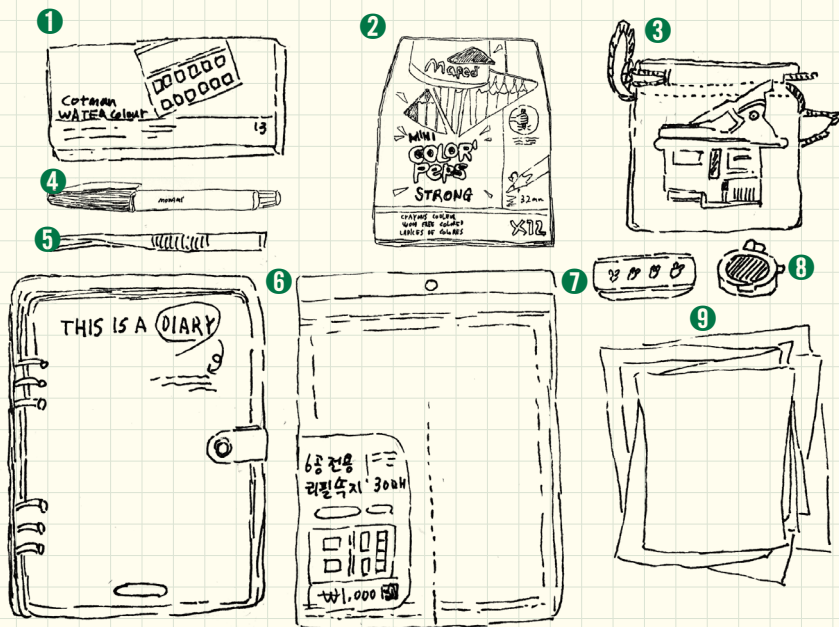
*시시각각 카드 : 광주천 생명체 그림카드입니다.

- 카드의 QR을 스캔하면 영상과 사진정보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 기억게임 : 카드를 전부 뒤집어 놓고 같은 그림 찾기 놀이
- 빈 카드에는 자신만의 생명체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자세한 다생시도관찰일기 활용법은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세요!

다생시도 자연관찰일기 키트



- ① 고체물감 : 채색용 수채물감
- ② 색연필 : 야외 관찰 시 소지와 채색이 용이한 미니 색연필
- ③ 고배율 접사렌즈 : 스마트폰 카메라에 연결한 뒤 접사렌즈 하단의 조명을 켜서 식물의 잎맥 등 식물 관찰시 사용
- ④ 수성펜 : 드로잉펜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
- ⑤ 핀셋 : 갯벌을 줍거나 작은 생물을 채집할때 사용
- ⑥ 자연관찰일기노트 : 관찰일기 기록, 채집
- ⑦ 투명비닐포켓 : 갯벌이나 기타 채집 보관용
- ⑧ 마스킹테이프 : 채집물 부착용
- ⑨ 먹물과 화선지, 수채용 종이 : 탁본이나 드로잉 시 사용



무엇을 쓰고 그리나요?

첫 번째 장

내가 관찰일기를 쓰려는 이유를 남겨 봅니다. 왜 이 기록을 시작하였고 어떤 과정 혹은 결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툇킷에 담긴 도구를 활용해 표현해보면 어때요?

두 번째 ~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 보도블럭 사이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 나무 사이를 오가는 이름 모를 새, 무엇이든 좋아요. 스치듯 본 것을 기억해서 그려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 그려도 좋아요.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자리에서 그려본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림과 함께 글을 남겨봅니다. 인상이나 나의 느낌,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남겨 봅니다.

날짜와 시간 기록해보기

일시	2023 년 11 월 11 일 토요일	시간	14 : 30
날씨	구름한점 없는 하늘, 노을이 떠본 겨울 날씨	장소	아파트 주차장

맑음, 흐림보다 구체적인
느낌으로 기록해보기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발견한 장소를
기록해보기

새파란 하늘
차가운 바람을 맞고도 남아있던
나뭇잎 하나가
뱅그르르 떨어져
밭 아래 머문다.



일시 2023 년 11 월 16 일 화요일

시간 13 : 20

날씨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날

장소 두암동일대



쥐구멍인척 하는 하수구



고개만 빼꼼하고 있는 쥐돌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거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 너무 가깝다.

일시	2023 년 11 월 16 일 화요일	시간	13 : 20
날씨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날	장소	두암동일대

도시산책을 하던 중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밑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 평소에 관찰력이 좋은 편이라서 움직이는 것에 잘 반응한다.
 어두운 네모 안에서 움직임을 느꼈다. 잠시 자리에 서서 기다려보니 작은 쥐
 한 마리가 고개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도심 속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쥐를 발견하니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구나..
 하는 마음에 반갑기도 두렵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거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귀엽다. 쥐를 보다보니 도시산책을 하며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임대 상가가 눈에 띄었다. 한집건너 한집 꼴이다.
 쥐의 삶과 현재 우리 이웃들의 삶. 너 나 우리가 참 처연하다.

일시	2023 년 10 월 26 일 목요일	시간	16 : 00
날씨	새털같은 구름이 조금 낀 날	장소	집 앞의 산



분꽃은 분꽃과 식물로 자말리엽이라고도 불리며
나팔꽃과는 반대로 오후 4시 무렵이면 꽃이
피었다가 아침에 오므라든다.



그런 이유로 four-o'clock, 즉 4시 정각이라
이름을 붙였나보다. 날이 흐리거나 맑거나
관계없이 오후 4시쯤이면 꽃이 활짝 핀다.

일시 2023 년 11 월 15 일 수요일	시간 10 : 30
날씨 좀 따뜻한 맑음	장소 군왕봉



산자락아래 나무 밑에 전에 보지 못한 형태의 갈색 동그라미
세 개를 발견해 스틱으로 찌려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갈색 연기가 푸~ 하고 나왔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나머지도 찌려보았지만 별 반응은 없었다.
몇 번 찌르다보니 마른 버섯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한 개는 포자가 퍼져나갔고 남아있는 하나를 내가 찌른 것이다.
버섯이 포자로 번식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연기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버섯은 오전에 발견한 나무와 다르게
소나무에 기생해 있었다. 기생하며 사는 삶.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일시 2023 년 11 월 11 일 토 요일

시간 19 : 00

날씨 새파란 하늘과 찬바람이 부는 날

장소 두암동일대



도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들은
줄을 참 잘 선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부대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전선위에 자리 잡는다.
언젠가 겨울이 오기전 제주도에서
동남아로 이동 하기위해 모여든
제비떼의 소식을 들었다.

제비 또한 줄서기를 잘하는 새로 꼽힌다.
한 마리가 번잡한 전선위에 기어들면
옆에 있는 한 마리가 한발자국 옆 걸음치며
이동한다. 착착착 이동하는 새들을 보면
너무 귀엽다. 도심 속 비둘기들 보며
제비를 연상하듯 우리 또한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공감의 영역을 넓혀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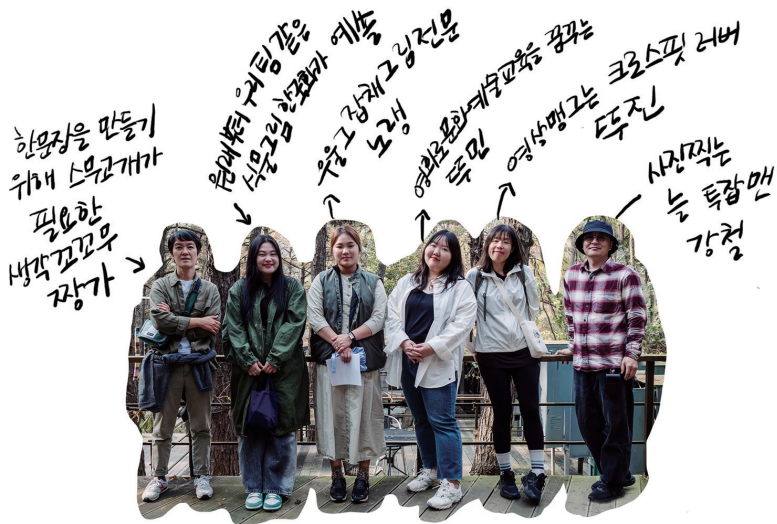
자신만의 특별한 관찰이 담긴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찬찬히 걷고 무심히 머물며 도시의 자연을 만나고
기록하다 보면 내 삶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생명들과 공명할수 있을지.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날씨					장소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날씨				장소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의
창의랩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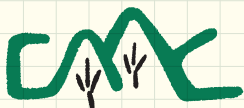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